

2019. 8. 26(월) ~ 8. 31.(토)[5박6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유적 탐방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19년 9월



용인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중국
2. 출장목적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유적 탐방
3. 출장기간 : 2019. 8. 26.(월) ~ 8. 31.(토)
4. 보고서 작성자 : 자치행정위원장 유진선
5. 출장자 인적사항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문화복지위원회	남홍숙	
경제환경위원회	황재욱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경제환경위원회	명지선	

목 차

I . 공무국외출장 개요	1
1. 출장목적	1
2. 출장개요	1
3.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1
4. 출장일정	2
5. 주요방문지	3
6. 출장자 명단	5
II . 출장국가 개요	5
III . 출장내용	7
1. 홍구공원, 상해 임시정부청사	7
2. 항주 임시정부청사	11
3. 용정실험 소학교, 윤동주 선생 생가	14
4. 한중우의광장(김좌진 장군 유적지)	18
5. 한중 우의공원, 조선족 실험소학교	21
IV . 총평	25

I

공무국외출장 개요

□ 출장목적

- 국외 선진도시의 우수시책과 주요시설 관련 유적지등의 견학과 탐구를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안목과 식견을 넓히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용인시 발전 도모와 역사 문화적 정체성 재정립을 통한 용인시민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함.
-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용인지역 국내 만세 운동과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국외로 피신하여 이어져 온 임시정부 수립과 임시정부 관련 독립 운동, 신흥무관학교, 민족학교등 관련 다양한 항일독립 운동에 투신한 용인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찾아 선열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조례를 제정하고 용인시 행정부에 정책제안을 통해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
- 용인 지역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근대문화유산을 거리재생, 문화재생 등에 접목하는 방안 모색.
- 용인의 독립운동가인 오의선, 오광선, 여준, 김혁 등의 국.내외 항일독립운동 대해 더 배우고 성찰하는 계기 마련, 이를 다양한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접목.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9. 8. 26.(월) ~ 8. 31.(토) / 5박6일
- 대상국가 : 중국(상해, 항주, 이도백하, 목단강)
- 참석인원 : 12명
 - 유진선(대표), 장정순(간사), 남홍숙, 황재욱,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하연자, 명지선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3명

□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세 부 내 용	용인독립 운동가
8.26.(월)	인천	상해,항주	홍구공원 상해 임시정부청사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윤봉길의사 의거 홍구공원 방문	오의선 이영선
8.27.(화)	항주	항주	항주 임시정부청사	항주 임시정부 청사 방문	
8.28.(수)	항주	이도백하	용정실험 소학교, 운동주선생 생가	여준선생 관련 용정실험 소학교 및 운동주선생 생가 방문	여준
8.29.(목)	이도백하	목단강	북백두산	북백두산 등정	
8.30.(금)	목단강 (흑룡강성)	목단강	한중우의광장, 한중우의공원, 해림시 조선족 소학교	신민부가 세운 소학교 해림시 조선족 소학교 및 한중 우의공원 방문	김혁, 오광선 오의선
8.31.(토)	목단강	인천	목단강 팔녀투강비 등	목단강 팔녀투강비 등 시찰	

□ 출장 일정

일 정	지 역	교통편	시간	세 부 일 정	비고
제1일 8/26 (월)	인천 상해 항주	KE893 전용차량	08:30 09:40 12:00 14:00 15:00 16: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상해 푸둥 국제공항 도착후 입국심사후 중식 공식방문- 윤봉길의사의 의거현장 홍구공원 공식방문- 상해 임시정부청사 항주로 이동	
제2일 8/27 (화)	항주	전용차량	08:00 09:30 18:00	기상후 소식 공식방문 - 항주 임시정부청사 <임정기념관, 임정요인거주지> 석식 후 휴식	
제3일 8/28 (수)	항주 연길 용정 명동촌 이도백하	전용차량 MU5671 전용차량	05:00 07:05 12:00 14:30 16:30	기상후 소식 / 공항으로 이동 항저우 출발 연길 도착 / 중식 공식방문 - 독립운동가 여준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용정실험 소학교 방문 - 서전서숙기념비 > 윤동주선생 생가 방문 이도백하로 이동	
제4일 8/29 (목)	이도백하 백두산 목단강	전용차량	06:00 07:30 09:00 12:00 13:00	기상후 소식 북백두산으로 이동 민족의 영산 북백두산 등정 중식후 옛 북만주(북간도)인 목단강으로 이동	
제5일 8/30 (금)	목단강	전용차량	07:30 10:00 14:00	기상후 소식 공식방문 - 한중우의광장, 한중우의공원 공식방문 - 항일독립운동가 김혁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신민부가 세운 소학교 - 해림시 조선족 실험소학교>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의 활동과 한인이주역사, 일제의 침략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6일 8/31 (토)	목단강 인천	전용차량 KE5812	07:00 09:30 12:00 15:20 18:55	기상후 소식 공식방문 - 목단강 팔녀투강비등 시찰 중식후 공항으로 이동 목단강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주요 방문지

<p>홍구공원 (현 루쉰공원)</p>		<p>1932년 윤봉길 의사가 일본 고관을 향해 폭탄을 던졌던 역사적인 곳.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윤봉길의사 생애사적전시관’이 있으며 윤봉길 의사의 초상화와 그의 생애에 걸친 자료, 그가 사용한 교재와 친필 편지, 당시의 신문기사, 도시락폭탄, 수병폭탄 모형 등이 전시되어있음.</p>
<p>상해 임시정부청사</p>	 	<p>3·1운동 직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해[上海]에서 조직하여 선포한 임시정부로, 1919년 4월 11일 각 지방대표 29명이 모여서, 이동녕을 의장으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 개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가결함.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이 탄생. 이외에도 상하이에는 임시정부 청사가 여러 곳 있음. *용인의 독립운동가 오의선 선생이 경기도의원으로 선출, 1919.4.30~5.13 제4회 의정원 활동</p>
<p>항주 임시정부청사</p>		<p>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의 상해 홍구공원(루쉰공원) 폭탄 의거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주로 이동하여 처음에는 국무위원 김철이 머물던 청태 제2여관 32호를 청사로 사용하다가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장생로 호변촌 23호에 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다.</p>

<p>서전서숙 (현 용정실험 소학교) ※여준 선생 관련 유적</p>	 	<p>만주(북간도)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민족학교라 일컬어지는 '서전서숙'은 이상설선생이 1906년 10월경 설립. 1907년 이상설선생이 헤이그특사로 선임되어 숙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고, 이동녕선생도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가서, 용인의 독립운동가 여준선생이 학교운영을 맡게 되었음. '서전서숙'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존속됐지만, 간도지역의 민족교육의 선두가 되었다. '서전서숙'이 일제에 의해 간도보통학교로 바뀐 후 여러 교명을 거쳐 '용정시 용정 실험 소학교'가 되었으며, 교문을 들어가서 오른쪽에 서전서숙 유적이 남아있다.</p>
<p>해림시 조선족 실험 소학교 ※김좌진, 김혁 장군 관련유적</p>		<p>1926년 김좌진 장군이 독립투쟁 전개 당시 설립한 20여개의 학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학교로, 김혁 장군의 발자취가 있는 곳으로 처음은 신창학교였다가 현재 조선족 실험소학교가 되었다. 현재의 조선족 실험 소학교 교실에서 교장선생과 면담을 가졌다.</p>

□ 출장자 명단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직급)	비고
한 글	영 문			
남 홍 숙	Nam Hong Sook	여	용인시의회 부의장	문화복지위원회
황 재 옥	Hwang Jae Ouk	남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유 진 선	Yoo Jin Sun	여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이 은 경	Lee Eun Gyeong	여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윤 원 균	Yoon Weon Gyun	남	용인시의회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장 정 순	Chang Jung Soon	여	“	문화복지위원회
김 진 석	Kim Jin Seok	남	“	자치행정위원회
하 연 자	Ha Yeon Ja	여	“	경제환경위원회
명 지 선	Myung Jee Sun	여	“	경제환경위원회
김 종 국	Kim Jong Guk	남	의회사무국 직원	
안 수 용	An Su yong	남	“	
황 재 성	Hwang Jae Sung	남	“	

II 출장국가 개요

□ 일반현황

- 국명 : 중국(中國, CHINA)
- 수도 : 베이징(북경)
- 인구 : 14억 2006만 2,022명(세계1위, 2019 통계청)

- 면적 : 약 960만km²(세계4위, 한반도의 약 44배)
- 민족
 - 한족(漢族, 91.5%) 및 55개 소수민족(8.5%)
 - 조선족:183만여명(소수민족의 1.6%)
- 기후 : 중국의 기후는 최남단의 열대에서 서부의 건조기후, 동북삼성의 냉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다양한 기후가 대부분 나타나고, 지형고도면에서도 동부의 저지에서 서부의 8000m급 고산지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 정치체제

- 정치체제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 행정구역 : 22개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GDP) : 13조 6,081억 달러 (세계 2위, 2018년 기준)
 - 미국(20조 4,941억 달러), 일본(4조 9,709억 달러), 한국(1조 6,575억 달러)
- 1인당 GDP : 9,633달러(세계 65위, 2018년 기준)
- 교역규모 : 4조 6,230억불
 - 수출: 2조 4,874억불
 - 수입: 2조 1,356억불
 - 수지: 3,518억불 흑자
- GDP 성장률 : 6.6% (2018년)
- 산업비중 : 1차 7.2%, 2차 40.7%, 3차 52.2%

Ⅲ

출장내용 (유적지 방문)

□ 홍구공원(윤봉길의사 생애사적전시관)



○ 일 시 : 2019. 8. 26.(월) 15:00

○ 시설개요

- 상해 매헌 윤봉길의사 생애사적전시관은 약 20여명의 정자형태 2층 목조건물로 윤봉길의사가 1932년 일본군 요인을 폭살한 홍구공원 의거를 기념해 1994년 상하이 홍커우구 인민정부와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 야외 : 윤봉길 의사 생애 전시
- 1층(전시관) : 추모홍상 / 의거 성과 및 영향 / 조국광복
- 2층(전시관) : 윤봉길 의사 관련 영상 상영

○ 주요내용

- 매헌 윤봉길의사

	<p>1923년 충남 예산군 출생으로, 23세 되던 해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環)」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2년 4월 29일 홍커우공원 의거를 현장에서 체포 후 같은 해 일본 가나자와 교외의 형무소에서 장렬히 순국,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p>
<p>생애사적전시관 1층 내부에 자리한 윤봉길의사의 흉상</p>	

- 중국에서의 첫 방문지는 윤봉길의사 의거 장소인 홍구공원이었다. 시간관계상 홍구공원 전체를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념해 공원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생애사적전시관을 건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가늠할 수 있었다

○ 방문사진

	
<p>홍구공원 입구에 자리한 기념비의 모습</p>	<p>전시관 외부 전경</p>
	
<p>전시관 1층 내부 전경</p>	<p>전시관 2층 영상 관람</p>



물통형 폭탄, 윤의사가 가지고 있던 도장, 의거당일 아침 김구 선생의 시계와 맞바꾼 윤의사의 시계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왼쪽 상단에 한글로 표기된 모습을 볼수 있다



전시관 1층 내부에서 윤봉길의사의 업적 및 넋을 기리는 묵념 및 기념 촬영

□ 상해 임시정부청사



○ 일 시 : 2019. 3. 26.(월) 16:00

○ 주요내용

- 중국에서의 두 번째 방문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청사는 아쉽게도 내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내부 사진 자료를 남기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 상해 임시정부 청사 관람 후 김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의 숙소가 있었던 영경방 골목을 관람하였다.

○ 방문사진



상해 임시정부청사 유적지 현판의 모습



상해 임시정부 청사 측면 모습



위 사진에서 보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사람이었다는 것이 놀라운 광경이었다.



임정요인 숙소가 있었던 영경방 골목 입구 모습

□ 항주 임시정부청사



○ 일 시 : 2019. 3. 27.(화) 10:00

○ 주요내용

- 1932년 5월 상해를 떠나 항주에 도착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무위원인 김철이 거주하던 청태 제2여관(군영호텔) 32호를 임시정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후 1933년 항주 장생로 55호(호변촌23호)에 청사를 마련하고 1934년 11월까지 사용하였다.

[위 사진은 장생로 55호(호변촌 23호)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 항주로 이전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5월 15 ~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무위원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임시정부를 재정비 하였으며 외교와 재정, 군사 등 독립운동 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 항주 임시 정부 관람 후 임정 요인들이 가족들과 거주했던 오복리 1로 거리를 돌아 보았다. 100년 이상된 건물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잘 보존되어 현재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 방문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항저우구지기념관 현판



항주 임시정부청사를 들어서면 그 당시에 사용하던 태극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 현지인이 한국어로 전시관 내부에서 설명해 주는 모습



김구 선생님 흉상에서 태극기를 들고



한국독립당 본부가 있었던 사흥방 입구



청태 제2여관(군영호텔), 현재까지도 사용



김구 선생 흉상 밑에 붙어 있는 김구 선생 글자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언제부터 이 모습으로 있었는지 파악은 안되었지만 시설물 관리에 미흡함이 보였으며 만약에 자국민의 흉상이었다면 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까 하는 씁쓸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모두 100년 이상 된 건물로 일부 건물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지석에 쓰여진 년도를 보면 최근(2017년)에 표지석이 세워진 것으로 보아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표지석이 만들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관 안에 걸려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도이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중국 내륙으로 임시정부의 거처를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용정실험소학교 - 서전서숙기념비



○ 일 시 : 2019. 3. 28.(수) 14:00

○ 주요내용

- 서전서숙은 용인의 독립운동가이신 여준 선생과 관련이 있다.

여준 선생에 대하여

민족 교육자이며 독립운동가인 여준은 본명이 여조현(呂祖鉉)이며 용인 원삼면 죽릉리에서 태어났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간섭과 침략이 노골화되자 여준은 친분이 있던 이상설과 함께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양여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보안회나 대한협동회에 가담하였다. 또한 상동청년회를 통해 을사늑약 반대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이상설은 을사늑약 반대 운동 후 자택에 은거하며 은밀히 이회영, 여준, 이동녕 등과 의논하여 국외 망명 계획을 세웠다.

이상설은 이동녕 등과 함께 1906년 5월 비밀리에 조국을 떠나 상해를 거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이상설의 일행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황달영, 정순만 등을 만나고 함께 북간도 중에서도 한인이 많이 이주하여 사는 연길현 용정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이때 이들은 일본 관헌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정순만은 왕창동, 이상설은 이당, 이동녕은 이량, 여조현은 여준, 박정서는 박무림, 김우용은 김동환, 황달영은 전공달로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상설 등의 일행이 용정에 도착한 후 천주교 회장 최병익의 집을 사들여 수리하여 1906년 10월경 학교를 세우고 이름을 서전서숙이라 붙였다. 서전(瑞甸)이란 그곳 지방을 총칭하는 지명인 것이다.

서전서숙은 1907년 이상설이 헤이그특사로 선임되어 숙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고 이동녕, 정순만도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가서 여준이 학교 운영을 맡게 되었다.

여준은 서전서숙의 숙장으로 운영을 전담하였으나 이상설의 헤이그 특사 여비를 학교 재정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 또 통감부 간도파출소의 감시와 일진회의 방해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 결국 폐교에 이르게 되었다.

여준은 서전서숙이 폐교되자 이동녕, 황공달 등과 귀국하여 상동청년회와 신민회에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훈을 만나 1907년 12월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설립에 참여하였다. 국권 피탈 후에는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1919년 대한 독립선언서 작성과 발표를 주도하였다. 또 서로군정서가 결성되자 부독판을 지냈다.

- 용정실험소학교 내에 위치한 서전서숙 기념비는 학교 방문이 통제되는 관계로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 서전서숙 기념비의 위치를 보면 학교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경계(울타리)를 조정한다면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도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협의를 통해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방문사진



서전서숙 기념비를 불과 100미터 앞에 두고 학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정문 앞에서만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밖에 없었다

학교 정문에 한글로 학교명이 쓰이는 것을 보니 조선족이 거주하는 곳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신기한 듯 바라 보고 있다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명동촌(운동주 시인 생가)



○ 일 시 : 2019. 3. 28.(수) 15:00

○ 주요내용

- 명동촌은 함경북도 회령과 종성의 문씨, 남씨, 김씨, 윤씨, 송씨 등 다섯가문이 조선에 열강의 침탈을 피해 1899년 2월 18일 두만강을 건너 건설한 마을로 독립운동의 근거지이며, 민족운동의 산실이 되었던 명동교회, 1908년 4월 27일 김약연에 의해서 설립된 민족교육 기관인 명동교회가 있다.

○ 방문사진



명동촌 입구에서 현지가이드에게
관람 전 사전설명을 듣고 있다.



운동주 선생의 외조부이자
기독교계 민족운동가인 김약연 선생 기념비



윤동주 시인의 대표 시인 '서시'와
윤동주 시인의 반신이 조각되어 있는 조각물



윤동주 시인 생가(복원된 모습)



윤동주 생평 전시관 내부 모습



명동학교 옛터 기념관



김약연 선생 흉상



윤동주 시인 생가 정문 앞에 있는 표지석이다. 표지석 위를 보면 「중국조선족 애국시인」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연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국에 부리를 둔 민족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중국의 하나의 조그만 소수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한다. 실제로도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싫어한다고 한다

표지석에 「중국조선족 애국시인」이라 쓰여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단상 [중국의 화장실 문화]



출장 중 가장 당혹스러웠던 부분을 짧게나마 다뤄보고자 한다.

왼쪽 사진은 백두산을 가는 도중에 유일하게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의 모습이다
화장실 문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무리 개인이 운영하는 휴게소라고 하지만 믿겨지지 않는 광경이었다. 요즘은 그나마 칸막이라도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칸막이도 없이 좌변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한다. 백두산을 가기 위해 많은 단체 관광객 특히 한국 관광객도 많이 들르는 곳인데 관광서비스 차원에서도 화장실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으로만으로도 관광산업이 충분히 호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외국인을 위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을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다.

□ 한중우의광장(김좌진 장군 유적지)



○ 일 시 : 2019. 3. 30.(금) 10:00

○ 주요내용

- 한중우의광장은 김좌진 장군의 자택, 김좌진 장군이 동상 등이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김좌진 장군 동상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는 중 이 곳을 관리하던 노부부께서 우리 일행을 보시곤 향로를 준비해주시면서 향 냄새가 나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 목단강 지역 및 김좌진 장군과 관련된 용인의 독립운동가는 김혁 장군이 있다.

김혁 장군에 대하여

김혁은 본명이 학소(學昭)이며 현 용인 기흥구 농서동에서 태어났다. 1898년 6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1월 육군 참위로 임관하였으며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낙향하여 대종교에 입교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무송현(撫松縣)의 있는 흥업단에 가입하여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8월 왕청현(汪淸縣)에 있던 북로군정서에서 활동하게 된다. 9월에는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1회 졸업식에서 조성환과 함께 축사를 하여 학생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

김혁은 1920년 10월에 일어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로군정서에서 당시 그의 위치나 입장으로 보아 전투에 참여하여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산리전투 후 김혁은 김좌진, 서일 등과 함께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 북만주 밀산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1921년 6월의 자유시참변으로 큰 타격을 받고 남만주로 이동하여 대한통의부에서 활동하였다. 1922년 초 북만주로 와서 대한독립군 총재대리로 활동하였고 7월에는 영안현 영고탑 시내에서 대종교 교주 김교헌과 더불어 불령선인 수뇌자로 일본의 주시를 받고 있었다. 이후 수분하와 중동선 인근에서 활동하다가 영안현에서 학생 80여명이 재학했던 동양학원의 원장을 맡았다. 여기의 부원장에는 현천목이며 교원으로 계화와 이범석 등이 있었다.

김혁은 북로군정서를 재건하기 위하여 1924년 3월 북만주 동빈현을 근거로 하여 대한독립군정서를 조직하였다. 대한독립군정서는 1924년 4월 하순에 영고탑(寧古塔)에 있는 대종교당에서 대한군정서 연합총회를 열고 본부를 동빈현(同賓縣)에 두고 지부를 영안현(寧安縣)에 두기로 하였다.

1925년 북만주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3월 10일에 영안현 영안성 내에서 신민부를 조직하였다. 이때 김혁은 대한독립군정서의 대표의 1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신민부의 조직은 중앙집행위원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김혁이 중앙집행위원장을 맡고, 군사부위원장과 총사령관은 김좌진이 선임되었다.

신민부에서 군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목릉현 소추풍에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자 교장에 임명되어 부교장 김좌진 등과 함께 신민부 군인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성동사관학교는 5백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독립군 간부로 활동하게 하였다.

김혁은 위하현(韋河縣 현 상지시) 석두하사에서 살왜단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또 고려혁명자후원회를 조직,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1928년 1월 25일 일제는 위하현 석두하사 고려촌에서 신민부 본부를 급습하여 회의중인 김혁 등 주요 간부 10여명을 체포하였다. 김혁은 석두하사에서 하얼빈을 거쳐 신의주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언도 받았다. 그는 7년여의 수형생활 끝에 1936년 8월 2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출옥하였다. 출옥 후 김혁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에 거주하다가 1939년 4월 23일 자택에서 순국하였다.

○ 방문사진



표지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명칭은 중한우의광장이다



김좌진 장군 동상



기념 후 기념촬영



김좌진 장군이 피살당했다는 금성정미소 모습



금성정미소 내부 모습



김좌진 장군 자택 내부 모습



유적지를 관리하시는 노부부께서 떠나는 우리를 향해 아쉬운 듯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한중우의공원(김좌진 장군 기념관)

○ 일 시 : 2019. 3. 30.(금) 15:00

○ 주요내용

- 한중우의공원은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의 활동과 한인이주 역사, 일제의 침략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역사관·백야관·경비실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역사관은 지상 1, 2층 지하 1층 규모로 1층 기획전시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며, 자료실·전산실에는 컴퓨터를 설치하여 재중동포 및 한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실은 역사 및 문화동영상을 제작·방영하고 있다. 2층은 270평의 상설전시장이 있으며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항일독립운동사·한중수교·한류열풍 등과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다. 지하층은 연수원 및 숙소로 쓰이며 한국의 경제인 또는 일반인을 위한 어학연수, 유스호스텔 개념의 시설로 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일반 여행객·각 기업체 및 단체 방문시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 백야관은 한국 고유의 전통예식 등 한국 문화를 보급하며 각종 학술 활동·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 방문사진



김종해 관장님께서 직접 전시관을 돌며 열과 성을 다해 설명해주시는 모습이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시설을 총괄하는 관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위안부 피해자 이수단 할머니

2층 전시실을 들어서자 소녀상이 눈에 들어왔다. 관장님께서 이수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이번 출장의 어떤 다른 장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울분과 아픔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이 느꼈던 고통과 치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녀상 옆에 있는 유골함에는 실제 할머니의 유골이 있다)

이수단(1922~2016, 평양근교) 할머니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하셨던, '일제강제위안부'라는 상처를 안고 사셨던 할머니시다. 19세 때인 1941년 어머니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하얼빈공장 선불 취업이라는 거짓에 속아 하얼빈 '아성구 위안소'에 끌려 온 이후, 1943년 21세 때 동녕현 '석문자 위안소'로 이송되어 고초를 겪으셨다. 1945년 조국은 광복을 맞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길 포기하고 한을 품은 채 신산의 삶을 택하셨다. 중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학대가 심했고 슬하엔 자녀를 보지 못하셨다. 2016년 5월 17일 동녕현 사회경로원에서 만 94년의 한 많은 인생을 접으셨다.



위안부 피해자 이수단 할머니 영정 앞에서 묵념

□ 해림시 조선민족교육중심 (해림 조선족 소학교)



○ 일 시 : 2019. 3. 30.(금) 17:00

○ 주요내용

- 1926년 김좌진 장군이 독립투쟁 전개 당시 설립한 20여개의 학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학교로 용인의 독립운동가 김혁 장군의 발자취가 있는 곳으로 처음은 신창학교였다가 조선족 실험소학교가 되었다.
- 해림 조선족 소학교는 원래 소학교와 중학교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학교를 신축하여 소학교와 중학교가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 방문사진



○ 방문사진



장강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앞에서 설명해주시는 모습



한글로 되어 있는 교과서의 모습
신학기에 학생들이 받게 될 새책이다



수업시간표
한글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한다
(1교시 어문 수업이 한글 수업)



교실에 앉아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정면 상단에 중국 국기가 크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태극기는 절대 걸 수 없다고 한다)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것을 볼수 있다(남자 화장실 명패에 한쪽엔 한글로 한쪽에는 한문으로 표기)



운동장과 학교 건물 사이에 위치한 심터로
한국 학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국의
건축가에게 요청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아담한 교장실의 모습
(중국에서는 규정상 교장실 크기가 3평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 나라를 잃고 일제 식민통치하에서도 결코 포기 하지 않고,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펼쳤고, 체포되면 감옥살이하다가 또다시 독립운동을 지속한 선열들께 정말 고마움을 절실히 느꼈음. 임시정부 활동, 신흥무관학교 등 설립 및 무장투쟁, 민족교육운동, 자강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자금 마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그 분들이 계셔서 후손인 우리들이 오늘날 독립된 자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다.
- 그리고, 상해 및 항주 임시정부청사가 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일제의 탄압을 피해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조국의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항일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은 선열들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선열의 자주독립 정신을 100주년이 된 올해에도 변변히 기리지 못하여 송구스럽다.
- 또한, 타 지역 독립운동가는 알고 있으면서 오광선, 여준, 김혁, 남정각, 류근, 임옥여, 오의선, 이한웅, 민영환 등 수많은 용인지역 독립운동가의 성함과 독립운동 활동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송구스럽다. 이제라도 배우고 알게 되었으니 후손으로 그 뜻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데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과거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으며,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는 간도(만주)라 불리웠던 곳으로 망명한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과 친지, 동포들에 의해 민족학교도 세워지고 논도 개간되고 옥수수밭도 개간되었다. 그 황량한 낯선 이국 땅에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을 선열들을 떠올리며 끝도 없는 옥수수밭을 지나 독립운동가의 자택, 순국지등을 다녀오는 데 감개무량했다. 김좌진 장군 당시 자택과 금성방앗간을 재현 한 유적지를 방문했고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조선족 어르신 부부가 알뜰히 관리하는 정원과 꽃을 보니 고마움과 착잡함이 지금도 아련하다.